

# 원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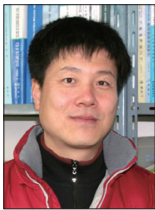
## 원주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코너

1

River & Culture

### 생태를 중심으로 하천활동을 시작한 원주환경운동연합



김 경 준 |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 활동팀장  
(kjkim0602@hanmail.net)

“김국장, 원주천의 지표종으로 버들치는 적당하지 않아” “버들치가 맑은 물에 산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상지대학교 생명과학과 최준길 교수와 제가 전화로 나눈 대화입니다. 2002년 1년여의 조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방의제21인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의 물분과 실천과제 중의 하나를 ‘버들치가 살고 있는 원주천 만들기’로 했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 일을 시작하고 5년쯤 되었을 때니 나를 자만했었던가 봅니다. 공부가 짧으면 물어 물어 가야 하는데 지방의제 실천과제를 잘못 설정했으니 큰 실수를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최준길 교수와 함께 한 시간이 만 5년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좀 안다고 했다가 크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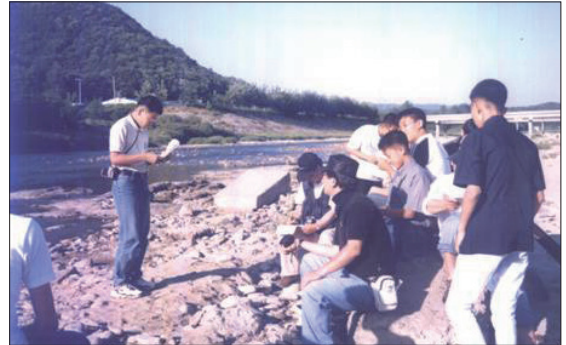




1997년 생태교실



최준길 교수



원주천 하류 식생조사(1998)

## 하천생태모니터링의 시작

원주환경운동연합이 1996년 12월 생태연구회 회원모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최준길 교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천모니터링은 열심히 물을 떠서 실험실에 보내 BOD 등을 체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어류와 수서 곤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라는 하천모니터링 기법을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나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1997년 7월에 '생태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중생태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헌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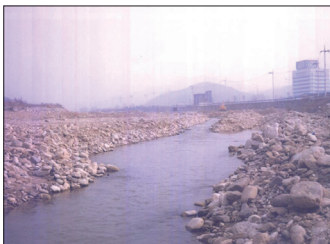
원주환경운동연합의 또 다른 하천탐사의 접근은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마감한 '섬강도보탐사'입니다. 원주천이 합류하는 섬강의 발원지인 횡성군 청일면부터 남한강과 합수되는 원주시 부론면 흥원창까지 약 100km를 3박4일 동안 걸으면서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원인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섬강유역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실사를 하게 되었고, 1998년 5월부터 1999년까지 김병우 교수(상지대학교 생명과학과)와 진행한 '원주천의 하류의 식생조사'는 하천과 그 주변의 식물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하천이 단순히 물이 흘러가는 곳만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계기점이 됩니다.





## 도시하천 하천정비사업의 모델을 찾아서

1997년에 하천생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하천생태에 눈을 떠던 원주환경운동연합의 눈으로 보는 원주천 호안정비 사업이 '자연형하천 복원 시범사업(1998년)'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고, 1998년 말에 '원주천과 시민의 삶'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발제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당시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과 만나게 되었고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한 수원천과 이후 전주천, 양재천, 안양천을 시민들과 함께 탐방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중 전주천과 안양천 탐방은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현재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와 함께 진행하게 되고 원주천 활동에 빼놓지 못할 협력기구인 지방의제21과 제현수 사무국장(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구체적인 현장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됩니다.

## 다양한 그룹들과 만나는 하천활동

원주환경운동연합의 하천활동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대성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입니다. 처음에 만났던 친구들이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대성고등학교 선생님(석형근, 김법성, 박종만)과 원주고등학교 장봉근 선생님, 진광중학교 박철우 선생님은 생태연구회 초기 구성원이기도 하

지만 10년이 넘는 하천활동을 지도하면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진행했던 '섬강도보탐사'는 당시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동아리인 '누리씨앗' 친구들이었고, 이 기간 동안 줄곧 1톤 트럭과 함께 존재했던 이호준씨가 없었으면 진행할 수 없는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초기에 중고등학교 방학을 이용하여 '원주천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동안 원주천을 걸으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 수중보 얘기를 하던 과정에 만난 학생들과 '푸른하늘'이라는 청소년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때 15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 원주천살리기 기본계획과 원주천의 정책과제 만들기



2004년 최흥식 교수(상지대학교 시스템공학과)의 제안으로 원주천살리기 기본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용역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원주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지금도 딱히 적절한 판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를 축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은 원주천의 현황과 미래상의 근거를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담당했는데, 1,000명의 시민들과 대면해서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은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에 기획해서 2007년에 상지대학교 방재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원주천 살리기 정책토론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의원, 공무원, 엔지니어링회사, 경관전문가, 생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원주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3차에 걸쳐 진행하여 정책과제를 만들어 원주시에 제안했습니다.

## 다시 처음으로

15년이 넘게 원주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상황이 좋아질 만도 한데 아직 내공이 부족한가 봅니다. 2010년에 당선된 원주시장이 '원주천 활용화 계획'을 발표하고 하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원주천 고수부지에 벽분수, 조명시설, 모래사장 등 물놀이 시설만 빼고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빼곡히 등장시키는 기획과 함께 원주천 상류인 신촌천에 292만톤 정도의 홍수조절지 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홍수조절지 댐은 홍수조절의 효과가 전혀 없고 하천의 유지용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기만 한데 추진하는 진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천활동이 10년 전 횡성댐 반대활동과 자연형하천 탐방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2011년부터 '도시와 하천, 물투어'

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생들과 하천탐방프로그램과 적극적인 댐반대활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닌 원주천 활동

1997년 신출내기 환경활동가가 나이가 들었듯이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했던,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나무를 심고 성장시켰다면 앞으로는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하천이 하천답게 자기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원주천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하천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해야 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